

일본에서 가장 남쪽에 사는 야생 사슴

아카지마 섬과 게루마지마 섬 등에 서식하는 사슴은 게라마사슴이라고 불립니다. 17세기 중순 무렵에 사쓰마에서 게라마로 들어왔다고 『류큐국 유래기』에 적혀 있습니다. 혼슈산 꽃사슴에 비해 몸집이 작고 수컷의 뿔도 작으며 털은 조금 거뭇한 색입니다. 보통은 산림 속을 중심으로 생활하지만 해안 근처에서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아열대 지역에 서식하는 귀중한 야생 사슴으로서 국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가을의 번식기가 되면 수컷들끼리 뿔을 맞대고 힘을 겨룹니다. 날이 저물어 어두워질 무렵, 해변 등지에서 수컷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